

# “어려운 이웃에 도움 주는 적십자 봉사원들 노고 알리고 싶어”

# ‘행복한 세상만들기 운동 협의회’ 창립5주년 기념행사

### 박홍석 전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회장 자료집 발간...광주일보 기고문 등 수록



박홍석(사진) 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력기산업 회장)이 적십자사 활동상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제30대 박홍석 회장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박 회장의 재임기간(2018년 7월 15일~2021년 7월 14일)의 연도별 활동을 비롯해 역대회장단 약력, 지사 회장 주요 활동, 기관 조직도, 임직원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박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이 많다는 점과 재난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적십자봉사원들의 활동상을 알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펴냈다.

그는 “지난 2020년 광주전남지역 수해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광주 재개발 건축물 붕괴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와 재난이 발생했다”면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적십자 가족들과 함께 보낸 3년은 정말 소중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십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면서 “적십자 가족들의 헌신과 열정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원동력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과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비상구조세트 및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는데 이를 계기로 많은 분들의 기부금품이 적십자로 도착하는 놀라운 경험을 재임기간 중 가장 의미있는 활동으로 꼽았다.

아울러 책에는 광주일보에 소개된 ‘우리는 형제다’, ‘나눔이 희망이다’라는 기고문을 비롯해 취약계층 물품 지원, ‘희망풍차 나눔 FEST’, 각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한편 박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발전 확대시키고 사·도민과 함께하는 적십자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며 “묵묵히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모든 적십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한 세상만들기 운동 협의회’(회장 박노창)는 지난 28일 두암 중앙교회에서 회원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2018년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창립한 행복한 세상만들기 운동 협의회는 그동안 5·18국립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지 비석두기, 5·18항쟁사적지 표지석두기 및 주변 청소, 군왕봉과 삼각산 등산로 꽃길 조성사업으로 꽃무릇시기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 행복한 세상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체육공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문화동 시외버스 터미널 청소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사업으로 취약계층 20가구에 쌀과 라면, 화장지를 지속적으로 기탁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동신대·광양제철소 ‘초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 기증식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제철소 제철시험실에서 ‘초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 기증식’을 가졌다. <사진> 초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은 150만 배까지 사물을 확대할 수 있어 사물의 나노스케일, 원자스케일까지 관찰이 가능하며 시료의 미세구조나 결함, 화학적 조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은 앞으로 이차전지와 태양전지, 반도체 소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동신대 최효승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 개발과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신대는 기증받은 투과전자현미경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이차전지ICC센터에 설치하고 이차전지 소재의 원료 결정구조 연구와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

## 인사

- ◆ 광주문화재단
  - ◇ 승진 ▲ 서환희 문화예술교육팀장
  - ◇ 전보 ▲ 광규호 경영혁신본부장(정령감사실장 겸직) ▲ 김지원 문화공간본부장 ▲ 유은형 정령감사실 팀장 ▲ 이창호 기획전략팀장 ▲ 오훈 문화사업팀장 ▲ 정연우 빛고을시민문화팀장
  - ◇ 전보(직무대리) ▲ 강형미 예술상상본부장 ▲ 김임호 시설운영관리팀장
- ◆ 동신대학교
  - ▲ 전진 교학부총장 ▲ 최효승 산학협력단장 ▲ 조중현 교무처장 ▲ 김성수 기획처장 겸 국제사업총괄관리본부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 양일승 학생취업지원처장 겸 동신사회봉사단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겸 IPP사업단장 ▲ 이상준 공과대학장 겸 에너지융합대학장 ▲ 박영희 보건복지대학장 ▲ 오성록 사회문화대학장 겸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 김정상 한의과대학장 겸 한의융합과학연구소장 ▲ 박은민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상담센터장 ▲ 이동휘 에너지융합대학 교학과장 ▲ 송중남 보건복지대학 교학과장

## NH농협은행 상무금융센터, 광주영광원에 후원금



NH농협은행 상무금융센터(센터장 조제호·오른쪽 첫 번째)와 NH-CEO 빛고을클럽(회장 정한상·오른쪽 3번째)은 최근 광주시 서구 덕흥동 복지12번 광주영광원을 찾아 100만원을 후원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두뇌공조(재)	15 헬로킴지 과학교실(재) 30 와쭉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신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남도 지오그래피(재)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KBS광주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55 UHD 송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방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연중 플러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kbc특집 히어로즈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트롤리
11	30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10 스포츠 매거진 50 포비든엘리 시즌4	4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전스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윙스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인간과 바다
08:00 똥덩당 유치원	13:50 EBS 다크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들레길	<기다렸다. 그 먼 타이완 -물과 불의 길, 온천 로드>
08:35 그린조개 구조대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노포 1부 세월을 깬 이발소>
09:05 슈퍼퍼피 잉글리시	16:05 영아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크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35 타타와 쿠마	16:25 그린조개 구조대(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똥덩당 유치원(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0일(음 1월 9일 戊子) ☎ 010-9790-8237

<p>36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48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제가 된다. 60년생 부수적인 요소들에게까지 신경 쓰는 것이 옳다. 72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포기함이 낫겠다. 84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96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먼저 행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96</p>	<p>42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54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66년생 확실히 유지하고 있어야만 활용하게 된다. 78년생 얼마만큼 치밀한 상황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90년생 정확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02년생 분간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83</p>
<p>37년생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만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49년생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61년생 중일 통분서주할 뿐 실익이 약하다. 73년생 사실은 별 것 아니니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85년생 해묵은 습관을 개선한다면 길상이 나타난다. 97년생 갑자기 급변하여 크게 놀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75</p>	<p>43년생 평상시에 공을 들여 놓는다면 실제로 임했을 때 훨씬 매력적일 것이다. 55년생 기대했던 것은 이미 물거품이 된지 오래였다. 67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행 보자. 79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91년생 불길한 기운이 보이니 조심해야겠다. 03년생 소신껏 판단하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20, 94</p>
<p>38년생 행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50년생 짐을 진채 거친 숨을 쉬면서 오르막길을 오름에 비유할 만하다. 62년생 정곡을 찢어서 본질을 파악하지 않을 것들만 헛고생만 할 뿐이다. 74년생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겠다. 86년생 조용히 더어 두는 것이 백번 낫다. 98년생 이미 이른 셈이다. 행운의 숫자 : 09, 74</p>	<p>44년생 우선 잘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라. 56년생 실재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필코 성사된다. 80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해야 할 것이다. 92년생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경쟁력을 낳을 것이다. 04년생 전분가나 증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19, 61</p>
<p>39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51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63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75년생 자가 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87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99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93</p>	<p>45년생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57년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 줘야만 한다. 69년생 중차대한 일이 보이니 만전을 기해야 한다. 81년생 복잡다단한 인간 관계로 인한 시달림이 보인다. 93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될 것이다. 05년생 과거의 잘못도 재려한다면 모순이다. 행운의 숫자 : 44, 78</p>
<p>40년생 무의식중에 행한 언행에 의해서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52년생 중량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겼다. 76년생 꿈꿔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88년생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00년생 규칙적이라면 신뢰감을 준다. 행운의 숫자 : 41, 67</p>	<p>34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46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70년생 비약하면 무리가 따른다. 82년생 대리 만족을 할 운세에 놓여 있다. 94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 86</p>
<p>41년생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3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65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77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89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01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2, 70</p>	<p>35년생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47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59년생 스스로 돌이켜 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71년생 먼 안목으로 내다보는 예지가 수반된다면 훌륭한 구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결실이 앞차다. 95년생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1, 50</p>